

자동차

테슬라 모터스, 중국 공장증설 가시화

자동차/타이어 Analyst 유지웅
02. 3779-8886
jwyo@ebestsec.co.kr



News/Issue

- 테슬라 모터스, 중국 징차오 그룹과의 상해공장 증설 가시화

Implication

- 최근 블룸버그, 로이터 등 언론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국영 부동산 업체인 징차오 그룹과 합작사 형태로 상해공장 설립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도됨. 다만 두 업체 모두 현재 확정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- 테슬라는 현재 중국에 25%의 관세를 내며 수출을 하고 있어 중국내 EV시장에 진출을 했으나 사실상 판매마진을 확보하지 못한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임. 따라서 현지공장 증설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세계최대 전기차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확보를 위해선 필수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음.
- 한편 JV 상대방 업체가 비자동차 업체라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며, 합작사 설립여부가 확정될 경우 테슬라는 타 자동차업체와의 기술공유 없이 중국내 그대로 테슬라 모델을 판매하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 로컬 OEM들과 JV형태로 EV를 생산할 계획중인 타OEM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환경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.
-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18년 말까지는 중국내 생산공장 증설을 완료시키겠다고 언급한 상태이며, 현재 언급된 Model3의 2017년 생산대수(약 20만대)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임.

Call

- MOU 체결 진위여부를 떠나서 테슬라 관련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
- 특히 국내 관련 부품 공급업체들은 연초에 있었던 Model3 관련 모멘텀이 중국 증설로 인해 지속될 가능성이 큼
- 추가 기가팩토리 증설에 대한 관련업체는 파나소닉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, 어쨌든 주목할 필요가 있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유자웅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	+20% 이상 기대 -20% ~ +20% 기대 -20% 이하 기대	90.5% 9.5%	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 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5. 4. 1 ~ 2016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